

2018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토요일 오후)

논술고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고사장번호() 지원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임.
2. 반드시 문항별 지정된 작성영역에 답안을 기재할 것.
3. 답안의 분량을 지킬 것(띄어쓰기 포함).
4.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말 것.
5. 제목을 쓰지 말 것.
6. 답안 작성은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할 것.

Part I

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1〉

The funeral for my high school buddy Kevin Green is Saturday. The doctors say he died at age 54 of multiple organ failure¹. Lots of Americans would have seen Kevin — obese² with a huge gray beard, surviving on disability and food stamps³ — as a moocher⁴. They would have been harshly judgmental: Why don't you look after your health? Why did you father two kids outside of marriage? It reflects the delusion on the part of many affluent Americans that those like Kevin are lazy or living cushy⁵ lives. A poll released that wealthy Americans mostly agree that "poor people today have it easy because they can get government benefits without doing anything in return." But those who have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share the feelings of another and fall under the umbrella of emotional intelligence could judge. Actually, Kevin earned high school diplomas. Kevin was cheerful and astonishingly helpful. But then the dream began to collapse. The local glove factory and feed store closed, and other blue-collar employers cut back. Good union jobs became hard to find. For a while, Kevin had a low-paying nonunion job working for a construction company. After that company went under, he worked as shift manager making trailer homes. He fell in love and had twin boys. But because he and his girlfriend struggled financially, they never married. Then, about 15 years ago, Kevin hurt his back and was laid off. Soon afterward, his girlfriend moved out, took the kids and asked for child support. The loss of his girlfriend, kids and job was a huge blow. Kevin's weight ballooned to 350 pounds, and he developed diabetes⁶ and had a couple of heart attacks.

- The New York Times에서 재구성

1. multiple organ failure 다발성 장기부전 2. obese 비만의 3. food stamps 식량 배급표
4. moocher 부랑자 5. cushy 손쉬운 6. diabetes 당뇨병

〈제시문 2〉

자연은 진동의 세계이다. 원자, 분자, 공기, 물, 빛, 별 등등. 미시 세계에서 거시 세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물체와 매질은 진동으로 충만하며, 모든 물체는 고유한 진동 특성인 ‘고유 진동수’를 갖고 있다. 만약 외부에서 발생한 힘이 어떤 물체가 갖고 있는 고유 진동수와 동일하면 그 물체가 함께 진동하면서 진폭과 에너지가 점점 커진다. 이를 공명 현상이라 한다.

공명 현상을 이용하면 약한 힘을 가지고 큰 진동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네를 잘 타려면 서 있는 그네의 고유 진동주기에 때를 잘 맞추어 힘을 주기적으로 가하면 된다. 여기서 힘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힘의 주기이다. 아무리 힘이 약하더라도 그네의 고유 진동주기에 잘 맞추면 공명에 의해 진폭을 크게 키울 수 있다.

— 『EBS 수능특강 국어』에서 재구성

〈제시문 3〉

“지금부터 그 채식이니 뭘지는 끝이다. 이거, 이거, 이거, 다 먹어라 얼른. 없어 못 먹는 세상도 아니고 무슨 꼴이냐.” 장모는 쇠고기볶음과 탕수육, 닭찜, 낙지소면 접시들을 들어 아내 앞에 펼쳐놓으며 말했다.

“뭘하고 있는 거냐? 어서 먹어.”

장인이 기차 화통 같은 목소리로 채근했다.

“영혜야, 먹어. 먹으면 힘이 날거야. 사람이 사는 날까진 힘차게 살아야지. 절에 들어간 스님들은 그만큼 수도를 하고 독신생활을 하니까 살 수 있는 거야.” (중략)

“아버지,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순간, 장인의 억센 손바닥이 허공을 갈랐다. 아내가 빵을 감싸쥐었다.

“아버지!”

처형이 외치며 장인의 팔을 잡았다. 장인은 아직 흥분이 가시지 않은 듯 입술을 실룩거리고 있었다. 한때 성깔이 대단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장인이 누군가에게 손찌검하는 광경을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다.

“정서방, 영호, 둘이 이쪽으로 와라.”

나는 머뭇거리며 아내에게 다가갔다. 빵에서 피가 비칠 만큼 아내는 세계 맞았다. 그녀는 그제야 평정이 깨진 듯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두 사람이 영혜 팔을 잡아라.”

“예?”

“한번만 먹기 시작하면 다시 먹을 거다. 세상천지에, 요즘 고기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불만스러운 얼굴로 처남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누나, 웬만하면 먹어. 예, 하고 먹는 시늉만 하면 간단하잖아.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장인이 고함쳤다.

“무슨 애길 하고 있어. 어서 팔 잡아라. 정서방도.” (중략)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아내의 입술에 장인은 탕수육을 짓이겼다. 억센 손가락으로 두 입술을 열었으나, 악물린 이빨을 어찌지 못했다.

마침내 다시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장인이 한번 더 아내의 빵을 때렸다.

“아버지!”

처형이 달려들어 장인의 허리를 안았으나, 아내의 입이 벌어진 순간 장인은 탕수육을 쑤셔 넣었다.

— 한강, 『채식주의자』에서 발췌

[문제 1]

〈제시문 2〉를 참고하여, 〈제시문 1〉을 요약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문제 2]

〈제시문 1〉과 〈제시문 2〉를 바탕으로, 〈제시문 3〉에 나타난 아버지의 행위를 분석하고 평가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